

액션으로 이어지는 토론회

“대전지역 성매매문제
어떻게??”

2017. **11.21.**(화) 14:00 ~ 17:00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50)

프/ 로/ 그/ 램/

개회 **14:00 ~ 14:10**

사 회 : 박경수 / 여성인권티움 사무국장

- 인사말
- 기관소개
- 토론회 취지 설명

주제발표 **14:10 ~ 14:40**

발제 : 김영아 /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팀장
「대전지역 성매매실태와 현황」

토론 **14:40 ~ 16:20**

토론 1. 이은주 /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노동과 성매매」

토론 2. 이혜경 / 대전성폭력상담소 팀장

「청소년 문제에서의 성착취」

토론 3. 임태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빈곤과 성매매」

토론 4. 서은덕 / 원도심 문화기획자

「문화예술로 보는 성매매」

토론 5. 민양운 / 풀뿌리여성 마을숲 대표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마을운동과 성매매」

질의응답 **16:20 ~ 16:50**

폐회 **16:50 ~ 17:00**

주제발표 _____

대전지역 성매매 실태와 현황

김 영 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팀장

대전지역 성매매 현황과 실태

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
김영아

사)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 성매매 관련 상담
- 법률지원
- 의료지원
- 홍보활동
- 교육 및 조사연구

- 자립, 자활을 위한 상담
- 일자리제공사업
-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 진학,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일자리 지원

한국의 성매매

한국의 성매매

- 1904년 일본인 유곽으로 등장
- 1916년 공창제 확립
- 1945년 한국전쟁, 미군주둔으로 기지촌 성매매 형성
- 1948년 공창제 폐지
-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 1970년대 기생관광
- 1980년 3S정책, 인신매매로 여성 공급
- 1990년~2000년대 청소년 대상 성매매 확산
-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 2010년대 사이버 성산업 확산

숫자로 보는 한국의 성매매

- 2명 중 1명
- 연간 1억 7,000만건 / 24조
- 성매매 여성 86% 빚에 시달림
- 1인당 평균 부채 17,476,130원 / 부채 73.86% 선불금
- 10대 유입 73% / 91.6% 가출경험 50% 숙박비

대전시의 실태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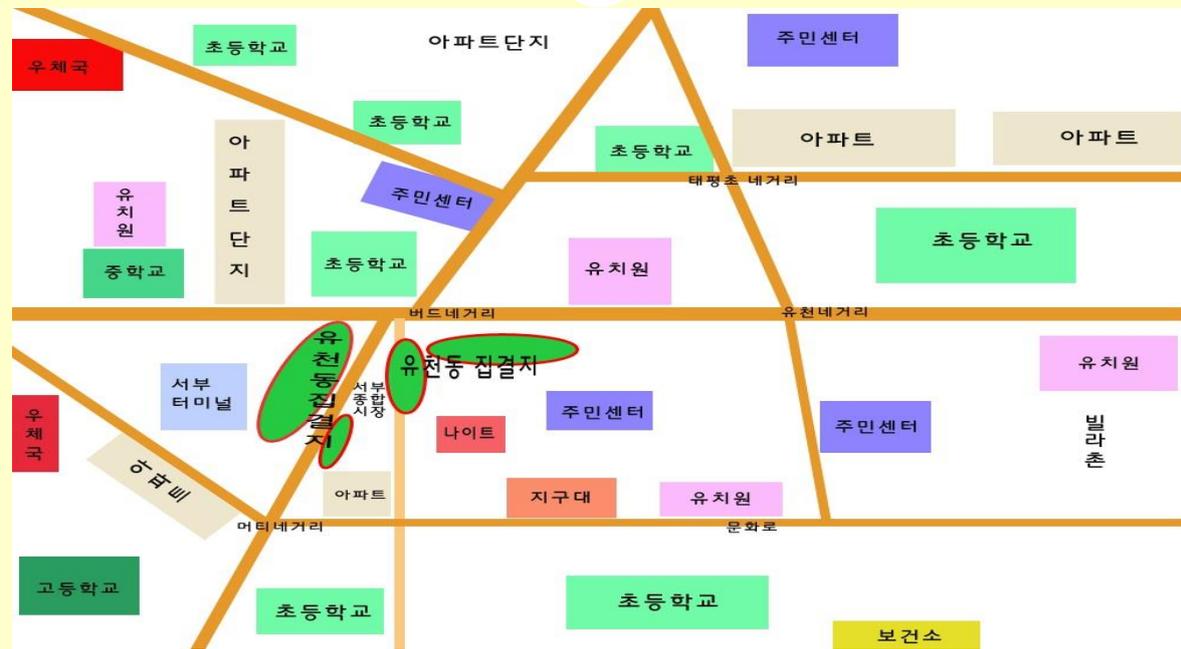
유천동 집결지

- 1970년대 말 서부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숙박업 번성과 함께 간이주점 형태의 방석집 형성
- 1980년대 유흥주점으로 업종 전환 후 유리방 형태의 영업
-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단속을 피해 모여들며 확대
- 2008년 ‘대전유천동인권유린해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9월 집결지 폐쇄(67개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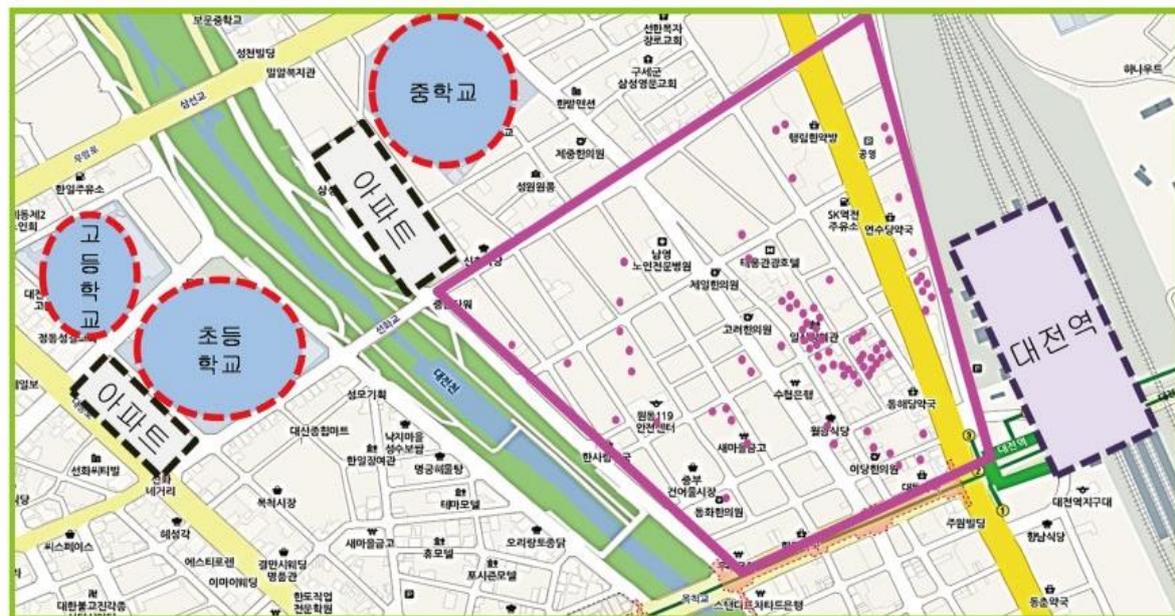
유천동 집결지

- 2011년 9개 업소 영업 재개
- 2012년 11개 업소로 증가
- 2013년 16개 업소
- 전국적인 집결지 폐쇄 정책과 관련하여 타지역에서의 이동
- 2017년 현재 21개 업소 영업 중
- 60여명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월 1회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평균 30여명 만남

유천동 집결지



중앙동 여인숙 집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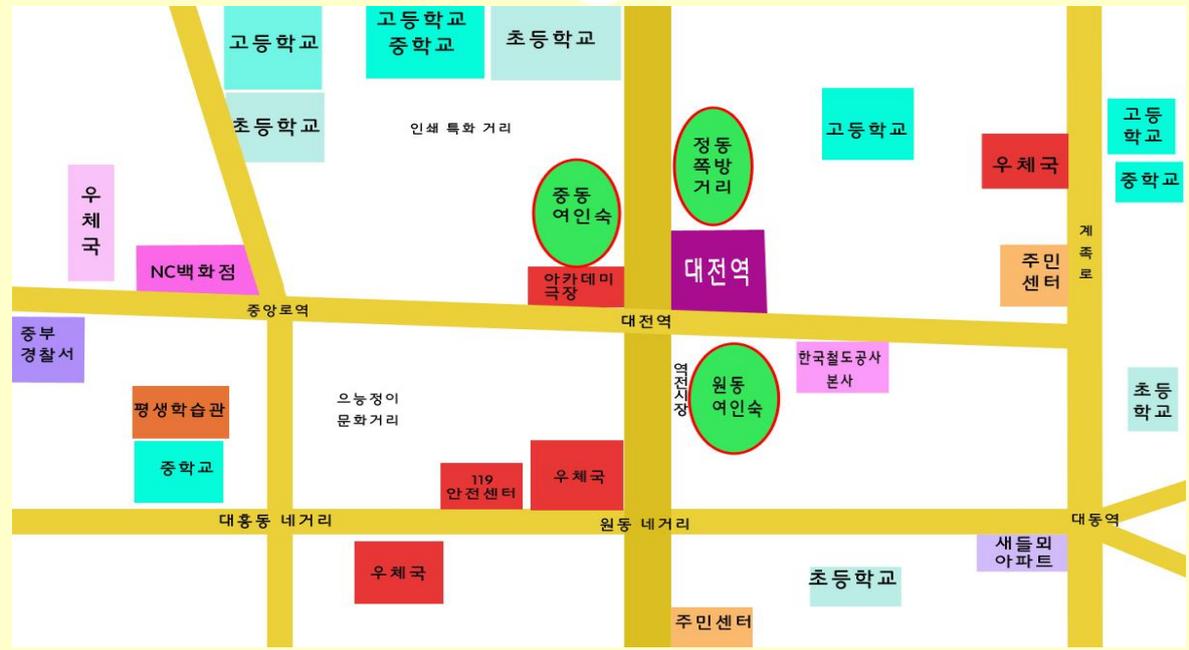
중양동 여인숙 집결지

- 일제강점기의 공창지역(중동 10번지, 춘일정)
- 숙박업소 중심 집결지
- 대전역 중심 원동, 정동, 중동 지역 / 1998년 중양동으로 통폐합
- 골목, 횡단보도 등 길에서 호객행위 고령여성(청객) / 100여명 추산
- 숙박업소 등록 69개, 미등록업소 12개 / 총 81개 + a
- 300여명의 여성이 3부류로 24시간 교대

중양동 여인숙 집결지

- 단숙이 없어 다른 지역 단숙 시 여성들 이동
- 청객, 사채업자, 구매자에게 겪는 피해 다수
- 고령, 저학력, 극심한 빈곤 상태 노출
- 단순 탈성매매를 벗어나 여성들 삶 전반에 대한 접근 필요(민생상담)
- 현장방문상담 시 평균 20여명의 여성들을 만나고 있으나 특정지역(중동) 한정
- 추후 지속적인 발굴 필요

중앙동 여인숙 집결지



도시재생사업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곳 제안서 접수

종합평가와 검증심의 거쳐 연말쯤 대상지 확정 예정

리소경 기자 승인 2017.10.26 09:06 댓글 0

대전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올해 시범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중앙공모 3곳, 광역공모 6곳 등 모두 9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앙공모 3곳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일원 20만㎡ △서구 ! 거리 일원 18만5790㎡ △대덕구 신탄진역 주변 17만8858㎡이다. 또, 광역공모 6곳은 구 가오동(주거지원형), 대동(우리동네살리기) △중구 중촌동(일반근린형) △서구 ! (주거지원형) △유성구 아은동(우리동네살리기) △대덕구 오정동(일반근린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개 유형에서 6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 곳은 국토부 주관 중앙공모로 선정하며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4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토록 했다. 대전은 유형별 1곳씩 총 3곳이다.

이에 시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말 준비회의를 시작해 서면평가의 실시,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평가검증단의 검증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보도자료 (http://www.daejeon.go.kr/)		
보도일시	2017. 9. 27.(수)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균형발전과	담당과장	송인록(042-270-6310)	
담당	이희정(042-270-6330)	담당자	오진숙(042-270-6332)	
사진	○	영상	×	
영장은 인터넷 웹하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www.webhard.co.kr, ID : daejeon11, PW : a1234>				
2017마을미술프로젝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행 - 9.25. ~ 10.13. 조임환 선생님 흑백사진전 '회상' 개최 -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와 (재)아름다운맹에서 공동 주관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당선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업을 (사)대전공공미술연구원과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은 동구(정동·원동) 역전길, 역전시장길, 창조길 10만㎡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공공미술을 접목하여 생활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년 프로젝트 사업이다.

청소년대상 성매매

대전지역 특성

- 교통의 요지, 가출 청소년 밀집
- 대흥동, 문창동, 선화동, 은행동 모텔 집중
⇒ 신분증 검사 없이 저렴한 숙박 제공
조건만남의 장소로 노출
- 청소년 보도방 100여개 영업
⇒ “청소년 보도천국”

대전지역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회

미성년자 '도우미' 알선 100억 챙긴 조폭

지난해부터 보도방 연합회 구성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 소개
조직원·보도방 업자 103명 검거



데스크승인 [6면] 2016.11.21

박진성 기자 | pen@ggilbo.com

노래방에 도우미를 독점 공급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긴 폭력조직원과 보도방 업자 등 103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에 의해 노래방 도우미라는 탈선의 길로 들어선 미성년자의 수만 수백 명에 달한다.

[관련 기사 - 가솔소년의 늪, 보도방...눈감은 사회도 공범]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도우미를 공급하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52명을 검거, 이 중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0) 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운영한 연합회에 소속돼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51명을 검거해 보도방 업주 C(22)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업주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경부터 지난달까지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해 가솔한 10대 등 도우미 약 350명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소개해 알선비 등 명목으로 99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폭 A 씨 등은 일반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모아 연합회를 만들고 대전 서구와 대덕 일대 유흥주점에 남성과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원들은 보도방 업주들에게 "다른 보도방 업주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해주겠으니 보호비를 내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등 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보도방이나 성매매 알선업체들이 대형화, 조직화되면 조직폭력배의 개입이나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된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성 기자 pen@ggilbo.com

거리청소년 밀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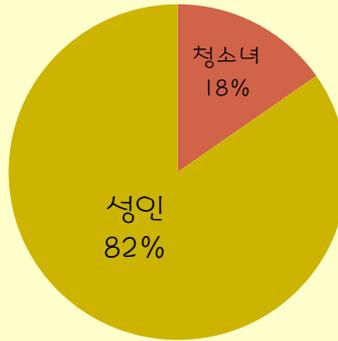


최근 3년간 청소년 상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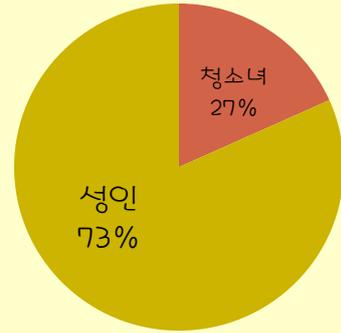
2014년



2015년



2016년



그래서!!
대전지역 성매매문제
어떻게?

우선은 만나봅시다!!



- 오늘을 기점으로
- 만나서 솔직한 고민을 나누고
- 서로의 자원도 공유하면서
- 학습하며 토론도 하고
- 지역사회와 성매매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봅시다!!
- 연대의 힘은 쉼다!!

토론

이은주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이혜경 대전성폭력상담소 팀장

임태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서은덕 원도심 문화기획자

민양운 풀뿌리여성 마을숲 대표

노동과 성매매

이은주(대전여민회 사무국장)

○ 노동인가? 착취인가?

- '성노동' 담론의 시작

'성노동(sex work)'이라는 명칭은 1970년대 말에 한 컨퍼런스에서 활동가 캐롤리가 사용하고, 이후 1987년에 발간된 『성노동: 성산업 내 여성들의 글』이라는 책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연구 기관의 대표이자 학자인 멜리사 팔리는 이 용어가 수십 년 전부터 '코요테(COYOTE)'와 같은 성매매 지지 단체들에 의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코요테'는 '지긋지긋한 윤리는 이제 그만(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이라는 말을 줄여 붙인 이름으로 1970년대에 창립되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의 주요 의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닌 성구매자의 명분이었다. ('코요테'의 전신은 '창녀, 주부 그리고 모두들'이라는 미국 최초의 성노동자 권익 향상 단체이며, 창립자는 마고 세인트 제임스이다. 그는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1962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포주이다. 성판매를 '노동'으로 정의하고 성매매 산업을 정상적 경제활동이라 주장하는 활동은 초기부터 포주들과 긴밀히 연관되었다.

- 성 착취가 '임금노동'이 될 수 없는 이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기업주)에게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형태를 임금 노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 임금노동은 노동자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고,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판매하는 수단 말고는 생활하기가 불가능해야 성립이 가능하다. 임금노동의 형성은 자본주의 성립에 전제조건이기도 하며, 또한 자본주의 아래에서 더욱 일반화된다. 요컨대 임금노동 없이 자본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자본 없이 임금노동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 노동을 주장하는 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자본=돈을 가진 사람에게 성노동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2. 노동력을 판매할 때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

합을 조직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 3.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성 노동을 합법화시켜야 하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전제 1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첫 번째로 성 노동자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노동론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에 따르면 성매매는 성 판매 여성의 성적 실천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에 따르면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 몸을 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권력관계를 보지 않고, 성매매를 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거래일뿐 이라고 보는 관점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 판매는 '노동력'만 제공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력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합이다. 인간소외 없는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노동력)-서비스(재화)-자본가(임금)로 이루어진 트라이앵글 안에 상호 긴장이 가능해야 한다. 이 긴장 속에 노동자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조율 할 수 있도록 비워진 틈, 즉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 판매는 노동자(노동력)와 서비스(재화), 구매자로부터 노동조건을 협상할 긴장이나 틈을 둘 재고의 여지없이 곧바로 인간의 신체로 침투한다. 예를들어 제조업 노동자들이 통조림 따위를 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두 발과 팔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두 발이, 두 손이 곧 노동력이 되거나 재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섹스노동은 곧바로 일치한다. 인간의 몸이 곧 노동력이며 서비스이며 재화가 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의 몸은 곧 '자아'이고 '인격'이며, '정체성'이다. 인간의 육체를 도구 삼는 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바로 인격의 손실로 이어진다. 노동력을 담보한 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없이 곧 바로 인권 침해인 것이다. "섹스는 인간, 즉 자아의 핵심적인 차원이다. 섹스가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될 때, 인간은 사물이 된다. 대상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기본전제 조건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캐슬린 베리 교수는 말했다.

- 성판매 여성을 이용하는 성산업

심지어 성노동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성판매 여성을 착취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듬해인 2005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족한 '성노동자 단체'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터전 국여종사자연맹'은 그 뿌리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이

하 한터)’에 두고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한터의 요구는 폐업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활동방향은 점차 ‘생존권’과 ‘성매매방지법 폐지’로 전환했다. 성판매여성에 대해 ‘성노동자’라는 명칭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활동 전환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서구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산업을 적법한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주의 이해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정책에 대한 여러 시각은 각각의 논리를 통해 ‘성판매 당사자’를 말한다. 뜨거운 논쟁 사이에서 비판적인 통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얼마나 대변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는 사회

성노동과 반성매매 운동 사이에서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여성주의 운동 안에 가장 첨예하게 자리 잡은 핫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 노동을 주장하던, 반성매매를 주장하던, 우리에게 기본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아야 할 기초는 ‘성매매여성’의 안전과 권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지해야 할 주장과 운동의 수혜자는 포주도, 활동가도, 연구자도 아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성노동을 지지했다가 반성매매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다. 나는 처음부터 젠더불균형모형에 의문이 있었다. 왜 항상 성을 판매하게 되는 것은 여성일까? 여성이어야 할까? 결국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현재에 와서 성을 판매하는 것이 여성만은 아닐 것 이라고 불멘소리를 하는 남성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을 판매하는 쪽과 구매하는 쪽의 성비는 압도적으로 높게 한쪽 성비로 정해져 있다.

생존권을 위해서 성노동을 주장했다가도 늘 이 대목에서는 서성여졌다. 그러니까 나는 사회가 여성들에게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는 사회. 이토록 우리사회에 알맞은 작명이 또 있을까. 똑같이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남성청소년이 탈 가정했을 때와 여성청소년이 탈 가정 했을 때 권유되는 일자리의 질과 종류는 천지 차이이다. 당연히, 남성 청소년에게는 성매매 하라고 어느 누구도 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에게는? 돈이 없으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매개가 성매매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다는 것. 왜 사람들이 이 대목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것은 없다. 이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사회의 시스템과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다. “몸이라도 팔아.” 라는 말을 들어본 여성은 너무나 많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혹은 소설 속에서 몸 파는 여자들은 너무 많이 재현되어왔고, 생활 속에서도 익숙해져있다. (물론 그녀들과의 ‘분리’를 주장하는 논리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이 탈 가정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찾는 것은, 또는 그녀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는 포주들이 존재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재현해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말이 남성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왜 일까? 어쨌든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나 다르다.

얼마 전 들었던 팟캐스트에서 깜짝 놀랐던 대목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산골짜기에서라도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 있으면 장사가 되더라는 것.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는 지지부진한 논쟁을 뒤로하고, 이야기의 논점은 그거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세상에 구매자가 없다면? 성판매 여성이 있어도 아무도 구매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섹스는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실컷 노동이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노동이라니 무슨 똥딴지같은 소리냐고 이야기 하실 분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돈을 주고받으며 임금노동의 형태로 지시되는 ‘성노동’에는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이의 관계 맺음에서 일어나는 섹스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것인 ‘노동’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 많은 단계들을 거쳐 가야만 한다. 그러나 남성이 이 관계 맺음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노동 행위를(감정노동, 보살핌노동, 어울림노동등) 건너뛰고 손쉽게 성 구매를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게으른 행위인가! 성매매는 남성들에게 관계맺음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박탈한다. 관계를 맺는 다는 것.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서로를 살피고 보듬는 성숙의 과정이다. 어쨌든 남성들이 이 관계맺음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한다면 언제까지나 유아기적 사고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끝으로 토론문을 마친다.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성착취(성학대)다.

대전성폭력상담소 팀장 이해경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명백한 성착취이며 이는 곧 성학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서 아동을 성착취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언급은 거시시적인 시선을 떠나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명백한 성학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자발적인 행위의 유무에 대한 담론으로 그들을 성적 착취에서 구제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발성’에 의한 선택이라고 담론되어 질 때 우리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현장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간과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는 개인의 취약성이 성적 착취로 활용되고, 개인의 취약성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으로 활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은 경제적, 정서적, 인지적, 보호적 등 모두 포함한다. 그 대표적인 유형은 가출팸에서의 수입구조에서 보여 진다. 가출한 청소년이 그룹을 형성하고 형성된 그룹에 속한 누군가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성구매자를 성적으로 응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서로 의지하고 정서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구성된 가팸의 유형이 오히려 상호착취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자신을 성구매의 대상과 음행을 알선한 자신의 가출팸에 대한 무한 믿음과 그들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서는 그들이 이미 성적 착취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장기적인 학대에 노출된 당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는 이러한 성착취 현상에서의 노출 시 생존적 선택으로 자신의 성적 착취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모순적 정서를 드러낸다. 또한 착취를 주도하는 가해자는 유인과 회유의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것은 아동·청소년성매매 당사자의 취약성이다. 이러한 취약성에 의한 성착취는 자신의 피해를 사회에 고발하지 못하고 상황에 순응하게 하는 무기력한 침묵으로 드러난다.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이 법령은 개정전(1995.12.29)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로 변경된다(2012.12.18.). 즉 음행의 상습과는 상관없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언급한 것이다. 어떠한 상황 및 조건과는 상관없이 '간음'에 이르게 유인하나. 현혹하는 모든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 당사자는 이 법령에서 자신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은 자가 '간음하게 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의 과정에는 자신의 성매매가 자발적 요소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요구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에서의 성착취에 대한 물이해는 협박과 강제, 강압 등의 위력의 행위가 없을 때는 쉽게 '동의를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의 용어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이 되어 대상청소년으로 해석하고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해석은 성매매현장에 나온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을 지닌 대상청소년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러한 대상청소년에 의한 성구매는 처벌대상이기는 하나 첫 번째 적발 시 그 행위의 강도를 떠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여 '존스쿨'에서 교육명령 수행 후 훈방하는 모순을 보인다. 형법 제 242조에 의한 음행매개죄도 그 처벌이 경미하다. 물론 아동·청소년 당사자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호처분'대상이라는 위치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범죄청소년의 위치로 범법행위에 대한 위반과 이에 대한 교육 및 행동수정의 대상으로 해석하게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가 성착취이며 성학대로 명백한 성폭력의 범위에서 피해자로서의 인식이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피해를 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보호'가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과 비보호적인 체계에 직면되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면은 자신의 성학대와 관련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권리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피해를 사회에 호소하려는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성학대에 의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아동·청소년성매매는 행위 결과의 '간음'만으로도 '성학대'여야 한다. 성구매자의 성구매(음행매개) 행위에 대하여 시도와 계획의 과정을 담백하게 처벌의 규정에 넣고 있다. 이는 행위 결과를 중심에 둘 때 '성구매'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을 판단의 근거로 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성매매 당사자에 대해서는 결과의 중심이 '간음하게 한'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경제적 및 기타 이득' 획득의 결과에 중심을

둔다.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으로 성학대 즉 성폭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유입 경로 및 행위 동기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의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가 과정과 경위에 협박, 강요, 유인 등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에 맞춘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성폭력을 분절적 시각에서 본다.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것을 배제한 성매매 행위 유입 경로를 분석하면 이는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학대의 유형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협박, 강요, 유인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성매매 당사자는 소년범으로 취급당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행위가 미성숙한 판단과 강요, 유인에 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제적 이득’이 오고갔다는 행위를 유인이 아닌 자발성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오류는 ‘이득’에 중점을 뒤 경위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성판매’라는 해석으로 아동·청소년성매매 당사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일 때 적용되는 성학대는 이미 폭력의 일방적인 흐름을 인정하는 경로가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학대의 경로와 아동·청소년성매매의 경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담론과 법적인 적용에서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성폭력피해일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과청소년성매매가 ‘음행매개’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 사회가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인가? 성풍속적인 면에 있어서 성구매를 여전히 당연시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 자신의 구매행위의 정당성을 아동·청소년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범죄시할 때 자신의 성구매행위가 다소의 피해자화 될 수 있기 때문일까?

‘성구매행위는 성폭력가해행위’이다. ‘성풍속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 성폭력가해행위’이다. 이러한 명백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 ‘이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매매 당사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해석한다. 미성숙한 판단력과 취약한 정서를 이용하고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이며 이러한 성착취의 행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성학대 피해자’이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성매매가 없으면 성구매도 없다는 왜곡된 논리를 편다. ‘음행을 매개로하는 이득’은 누구의 이득인가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이득의 제공’은 유인의 행위이며 현혹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성구매의 행위는 성풍속을 해치는 행동이지 성폭력행위가 아니라는 모순된 인식의 논리를 주장한다. 성구매자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성착취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학대의 행위로 수용되어 질 때 성구매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행위에 대한 성착취(성학대)의 해석이 배제된 사회적 통념은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에 집약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자의 처벌 범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정 하게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가 소년법을 위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라는 해석은 당사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한 통상적인 해석은 2017년 8월 25일 ‘대전성폭력피해여중생사망사건’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영리적 이득’을 매개한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 중점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행위에 유인된 피해당사자에게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여 15세 미만 조건만남은 성폭력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로 처벌의 대상’임을 강조하며 ‘무고죄에 대한 공포’를 주입하여 투신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인, 회유, 협박이라는 ‘음행을 매개로 간음하게 한’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압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였다. 이렇듯 사회의 전반에 흐르는 아동·청소년성매매행위에 대한 성착취(성학대)에 대한 해석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시점의 시각은 많은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현장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방임이다.

2017년 8월 25일 대전성폭력피해여중생사망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수사관의 물이해와 교육자들의 전형적인 통념이 그 시작점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성매매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통념이 얼마나 편협한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통념을 사건에 적용하여 성폭력피해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처벌대상으로 취급함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일면이다.

아동·청소년성매매 당사자를 성폭력피해자로 해석하지 않은 오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성매매에 의한 성착취는 학교폭력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 관련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의한 사안으로 학교 내 위력과 압력, 강제 등을 조사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안전보호 요청을 거절하는 학교의 냉혹함을 접하게 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여전히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유족에서 사과한마디 없다. 오히려 당사자의 죽음이 모욕적으로 유포되는 경로를 묵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라는 성착취에서 지켜 내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행위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성학대를 묵인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을 성학대에 노출하게 하는 사회적 방임을 행하는 주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다. 이것도 또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얼굴이다.

어느 문화예술인이 보는 성매매, 어떻게 풀고 싶나

서은덕(문화활동가, 구석으로부터 대표)

멀지 않은 내 이웃, 여인숙들

올해 3월, 대흥동 '산호여인숙'에서 5년간의 활동을 접고, 대전 동구 정동에 위치한 50년 된 교회를 개조해 자리 잡았다. 이곳은 예전 '정동교회'였고 20여 년간 인쇄업을 하시는 분의 창고로 쓰였다. 이곳을 작년 가을부터 공사해 '구석으로부터'라 정하고 전시, 공연 등 예술 공간을 표방하여 시작했다. 우리가 자리 잡은 정동은 대전역 주변지역으로 거대한 인쇄 공장부터 1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사무실까지 인쇄디자인의 종합세트 거리이다. 또한 한약방과 한의원이 즐비한 한약거리, 오래된 식당들의 북적한 낮 시간이 지나, 해가 기우는 시간이 되면 여인숙의 이모들이 한분씩 거리에 앉으신다.(사실, 낮에도 꽤 나와 계신다)

10여 년 전, 대전여민회와 함께 유성으로 아웃리치를 나간 적이 있다. 유성은 나에게 꽤 먼 곳이었고, 업소의 문이 건물 안쪽에 꽤 깊숙이 위치해 폐쇄적이고 먼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 정동의 여인숙(성매매 업소)은 길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들이 일하지 않는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 서로 닿아있다.

그들은 더 이상 먼 곳의 '성매매 종사자'가 아니고 인쇄일, 식당일, 한약방일, 예술행위를 벌이는 나와 같이 정동 지역의 일부분인 것이었다.

기억에 남는 장면 3개

#01.

정동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어느 대학의 건축과 학생이 '구석으로부터'를 방문했다. 정동 지역의 어둡고 음성적인 것, 꼭 집어 성매매 업소인 여인숙들이 없어지고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 원도심 지역은 활성화 되어야하는데, 부정적인 것들 즉, 낡고 음성적인 것들은 개선되어야한다고 다시 말한다. 이곳이 많이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02.

이 곳 정동에는 나이가 지긋한 성매매 여성들이 주로 종사한다고 생각했었다. 포주가 존재하지 않고 여인숙 자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성매매에 종사한다고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여인숙 근처에서 다니는 것을 종종 봤다. 나와 계신 분들의 나이로 보아 착각을 한 것 같다.

#03.

구매자를 봤다. 병원 환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호객행위를 하는 이모 뒤에 따라가는 것을 봤다. 늘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만을 봤고, 그들만이 성매매 종사자 같이 보였다. 성 구매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구매하는 자도 성매매 종사자였다.

반대, 그 넘어

나는 성매매 무조건 반대한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진 못했다. 나의 근거리에서 자주 그들이 보이자 이런저런 질문이 생기더라. 성매매 당했던 사람에게 ‘자활 - 다른 일자리에 대한 훈련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의 기회는 얼마나 있는가? 다른 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픈 의지가 그들에게 있는가? 여성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자주 있는가? 성매매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에게 일자리는 정말 이지 많지 않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없다. 그 어떤 선택지가 없을 때, 생존이 막막할 때, 괴롭게도 성매매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좋은 일자리가 촘촘히 많이 생겨 선택의 여지가 많다면, 기본소득이 된다면, 생존이 보장된다면 누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을까? 생존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된다.

친구의 인상 깊은 사례

부산에 노래하는 ‘이내’라는 친구가 있다. 이내는 몇 년 전, 부산의 성매매 집결지인 완곡동을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주변 친구들과 걸으며 나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 주간 ‘불현듯’이라는 잡지로 풀어냈었다. ‘20번을 걷고 얘기를 나누고 기록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곳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글 곳곳에서 보였다.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회를 거듭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시간이 더해지고 나에게 완월동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졌다. 그곳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좁고 오래된 길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나와 내 동료들의 의미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이 그 위에 포개어졌다.

- ‘이야기 수집가’가 되어 걷는 완월동. [두근두근 길 위의 노래] “주간 불현듯” 프로젝트, 이내, 페미니스트저널 ‘일다’에서 일부 발췌. (2015. 9. 18)

낮익어 지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로 나누는 것,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걸음이 인상 깊다. 힘을 얻는다. 일단은 ‘불편함’을 안고, 견고, 이야기하며 정동의 한 이웃으로 살아보고자 한다.

나의 키워드

대상화, 불거리, 성급함

위의 세 키워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다. 흔히 문화예술 행위가 지역에 들어가 공동체적 작업을 시작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불거리’를 만들어 ‘성급’하게 1년에서 3년 사업을 하곤 한다. 정동에서는 절대로 저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다. 외부에서의 시선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웃이 되는데 더 신경 써 보려한다.

정동을 떠들썩하게 하기보다 ‘옆집에 예술 하는 애들이 산대, 가끔은 시끄럽지만 썩 나쁘진 않아.’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웃 사람으로서 폐 끼치지 않고 웃으며 인사하면서 살고픈 마음을 가진 나로서는 성공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다르게 보지 않고 인쇄업, 한약업, 식당을 하는 이웃과 같이, 함께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 그 너머는 아직 잘 모르겠다.

도시재생과정에서의 마을운동과 성매매

민양운(풀뿌리여성마을숲 공동대표)

1. 한국사회 도시정비 60년과 도시재생

지난 60년간 한국사회는 경제개발을 통한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신개발과 재개발로 기존의 것을 밀어버리는 방식으로 도시를 정비해왔다. 이후 도시는 더욱 팽창했고, 가난한 원주민은 도시 외곽으로 외곽으로 이주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게 되었고 도시는 에너지 집중소비형 정주 형태를 형성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저성장시대에 고령화, 다문화사회, 1인 혹은 2인으로 구성된 소형가구 증가라는 이전 사회와는 전혀 다른 여건이 전개되고 있고, 이를 감안한 도시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불량주거지 정비가 주된 정책이었다면 2013년 공공의 역할을 통해 개별적 사업들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추진하고 주민중심 재생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지역재생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으로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강조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의 존재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재생의 지향이자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계속 확장해 온 도시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대부분의 성매매집결지의 재생문제는 행정과 반성매매 운동집단을 포함한 전문가와 성매매종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당사자 간 논의와 협의를 필요로 한다. 최근 전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선미촌문화재생사업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골치 아픈 장소를 깨끗하게 다 밀어버리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지 않고 도시가 성매매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근본물음을 던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역 앞 중앙동, 중구 유천동, 유성구 봉명동 등 성매매 집결지 재생에 관한 대전시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2. 마을운동과 성매매

마을운동은 일상의 공간인 마을에서 주민 당사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하며 조직된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마을운동과 성매매라는 주제는 사실 매우 낯설다. 성매매 당사자들은 사회적 낙인의

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렵다. 주민이면서 주민으로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사실상 성매매 당사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주민, 성적취향이 다른 이들, 이주민들, 실직자들, 비정규직 정규직 망라한 노동자들, 한부모 당사자, 청년들, 중증 환자들, 폭력피해자,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등등 일상의 공간인 마을에서 다양한 삶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지 않는다면 누구도 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마을운동에 다양성과 주민 당사자성을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3. 마을운동과 성매매 - 중촌동의 경험

중촌동은 2001년부터 마을살이를 시작했다. 중촌동자치센터 옆 솔밭공원에서 재 활용나눔장터와 문화공연, 만화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주민들 의사확인 없이 우레탄을 깔려고 했던 어린이놀이터에 문제를 제기하여 모래흙을 그대로 살리기도 했다. 2002년 2003년 군산 대명동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인한 성매매 여성 14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2004년 성매매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전여민회를 중심으로 대전지역과 인근 충청지역의 반성매매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2001년부터 시작한 마을운동에서도 주민회원들과 활동을 공유했다. 2012년 대전여민회에서 독립한 풀뿌리여성 마을숲은 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과 마을기업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밀, 마을카페 자작나무숲 공간에서 여성인권티움의 자활작업장 참가자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 사회적응실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명절에는 마을부엌 공간을 당사자여성들과 인권티움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마을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고, 마을카페에 인권티움작업장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코너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여성들과 주민들의 접촉면이 확실히 많아졌고 가진 자원이 적은 당사자여성들이 성매매에 내 물리는 처지와 그들의 자활의 중요성에 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4. 다시 도시재생과 성매매

도시가 성매매집결지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대전의 시민 개개인에게 물어야 한다. 당사자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자. 민민은 마을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주민으로서 당사자들의 단결과 성장을 응원하고 지원하자. 나와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주민들의 평등의식이 성장해 가고 지역사회는 품격을 높여가는 것이다.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